

경기 북부 지역 대학생들의 학교식당 이용실태

황윤경 · 이지호* · 김수희**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영양문제연구소

*신흥전문대학 호텔조리과, **경민전문대학 식품영양과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Opinions on School Cafeteria in Northern Kyungkido Area

Yoon-Kyung Hwang, Ji-Ho Lee* and Soo-Hee Kim**

Korea Nutri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Dep. of Hotel Cookery, Shin Heung Junior College

** Dep. of Food and Nutrition, Kyung Min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survey was based on the college students opinions on their cafeteria in northern Kyungkido area during three weeks(5th Nov. ~21st Nov., 1996). The rate of the daily usage of the college cafeteria was 64.29% in day time class, 44.35% in night time class. The first reason of using the college cafeteria was 'no other place to eat' in day time class(49.38%) and night time class(68.01%). The second reason was 'to be economical' and the third was 'to save the time'. The main reason for not using the college cafeteria was 'bad taste' in day time class(52.09%) and night time class(31.99%). The percentage of the students who ate outside of the college in day time class was 68.63% and night time class was 37.37, 31.18% of the night time class ate the dinner at home after school. The average type of the meal were : the boiled rice, noodles, cookies and bread(from the most to the least). The students survey showed rather dissatisfactory response on taste, preference, the number of the side dishes except the quantity of the food. The necessary improvements for the college cafeteria were, first, 'improve the quality and taste of the food' and 'increase the variety of the menu', 'lower the price' and 'sanitation' were followed.

Key words : college students' opinion, school cafeteria, northern Kyungkido area

서 론

최근의 식생활은 경제 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로 더욱 풍요로워진 듯이 보이나 이와 함께 영양상태도 더 양호해졌는가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바쁜 생활과 함께 불규칙한 식사, 결식, 빈약한 조식, 부적당한 간식 등으로 인하여 식생활의 조화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¹⁾. 이러한 식생활의 경향은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마침내 신체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활동시간을 보내게 되는 대학생들

의 경우 학교내에서의 식사 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대학생들은 규칙적이던 고교 시절과는 달리 갑자기 자유로워진 생활형태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식생활의 조화를 잃기 쉽다. 특히 원거리 통학이나 기숙사, 자취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주로 가정 외에서 식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학생 시기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건강에 대한 배려도 적은 시기인데 이 때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치적 태도는 이후 체력의 저하나 질병 발생

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대생의 경우²⁾ 아침 결식율이 20%에 이르고, 칼슘과 철분의 섭취 수준이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장래 어머니로서 자녀의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보건 차원에서 문제제기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점심 또는 저녁 식사는 학교 식당이나 학교 주변에서 개인의 기호와 경제성에 맞추어 편리한 대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3,4)}되어 학교식당의 중요성이 대학생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들어 수도권 지역 각 대학의 야간 학부 개설이 증가 추세에 있다. 야간 학부의 학생들 중 상당수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마치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등교시간에 비하여 야간 수업의 시작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식사를 할 여유가 더욱이 부족한 편이다⁵⁾. 부족한 시간 외에도 식당의 청결도나 내부의 밝기와 같은 식사 환경도 주간에 비하여 떨어질 것으로 야간 학부의 학생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는 주간의 점심식사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 대학생들의 균형있는 식생활 영위는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학업 증진, 학교 생활의 만족감, 문화적인 측면 등 의욕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경기 북부에 있는 몇몇 대학은 원거리 통학생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주간 학부와 더불어 야간 학부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주·야간별 식사 실태 및 대학식당의 운영상태를 조사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식사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넓게 인식시키며 대학 식당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제로의 개선에 도움을 주어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3개 전문대학의 학생 850명(A 대학 350명, B 대학 200명, C 대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6년 11월 5일에서 11월 21일까지 설문지 8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한 694부를 선정하여 조사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들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학교 식당의 이용 실태, 음식과 내부 환경

및 청결에 대한 만족도, 학교 식당의 개선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음식과 내부 환경 및 청결에 대한 만족도는 5점 항목척도⁶⁾(1=매우 안좋다, 2=안좋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 좋다)로 나타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강의실에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 결과의 통계처리는 통계 package program인 SAS를 이용하였다. 음식과 내부 환경 및 청결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통계처리 방법은 각 항목에 대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수간의 유의성 검증은 t-test와 χ^2 -test를 이용하였다⁷⁾.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주간 학생 322명과 야간 학생 37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학생은 33%, 여학생은 67%를 차지하여 여학생이 약 2배 가량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나이는 52.45%

Table 1. General informations on students survey N(%)

		Day*	Night**	Total
Sex	Male	91 (39.74)	138 (37.10)	229 (33.00)
	Female	231 (71.74)	234 (62.90)	465 (67.00)
Total		322 (100)	372 (100)	694 (100)
Age	18~20 yrs.	189 (58.70)	175 (47.04)	364 (52.45)
	21~23 yrs.	97 (30.13)	108 (29.03)	205 (29.54)
	24- yrs.	36 (11.18)	89 (23.93)	125 (18.01)
Total		322 (100)	372 (100)	694 (100)
Housing	Own house	308 (95.65)	346 (93.01)	654 (94.23)
	Relatives house or lodgings	4 (1.24)	4 (1.08)	8 (1.15)
	Self-boarding	10 (3.11)	22 (5.91)	32 (4.61)
Total		322 (100)	372 (100)	694 (100)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가 18~20세였고, 21~23세가 29.54%, 24세 이상이 18.01%로 나타났으며, 야간 학생의 경우 24세 이상이 주간 학생의 11.18%에 비해 23.93%로 더 많았다. 거주형태는 자택이 94.23%로 대부분이었고, 친척집 또는 하숙이 1.15%, 자취가 4.61%로 소수였다. 야간 학생의 경우 전체수에 대하여는 적은 부분을 차지하나 자취가 주간 학생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이는 경기 동북부에 위치한 3개 대학이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⁹⁾와 유⁹⁾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자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학교식당의 이용실태

Table 2는 학교식당의 이용횟수를 조사한 것으로 '거의 매일 이용한다'가 53.6%, '1주일에 1~2회'가 23.78%, '1달에 1~2회'가 6.92%, '1학기에 1~2회'가 2.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학교식당 이용율은 한¹⁰⁾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식당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56%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매일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식당을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주간 학생(64.29%)이 야간 학생(44.35%)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1), 1~2회/주 이하의 이용률에서는 주간 학생보다 야간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야간 학생들의 식당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야간 여대생의 경우 이¹¹⁾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저녁식사를 학교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23.4%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고, 거의 매일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직업군은 9.6%, 비직업군은 22.2%로 비직업군의 학교식당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Table 2. Frequency of using the college cafeteria N(%)

	Day*	Night**	Total	Remarks
Nearly every day	207 (64.29)	165 (44.35)	372 (53.60)	χ ² =31.64 DF=4 p<0.001
1~2 times / week	53 (16.46)	112 (30.11)	165 (23.78)	
1~2 times / month	17 (5.28)	31 (8.33)	48 (6.92)	
1~2 times / term	11 (3.42)	9 (2.42)	20 (2.88)	
Less than 1~2 times / term	34 (10.56)	55 (14.78)	89 (12.82)	
Total	322 (100)	372 (100)	694 (100)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Table 3. Reasons for using the college cafeteria N(%)

	Day*	Night**	Total	Remarks
To be economical	91 (28.26)	45 (12.10)	136 (19.60)	χ ² =35.81 DF=5 p<0.001
To save time	56 (17.39)	58 (15.59)	114 (16.43)	
No other place to eat	159 (49.38)	253 (68.01)	412 (59.37)	
More convinient	12 (3.73)	11 (2.96)	23 (3.31)	
For the taste	0 (0.00)	2 (0.54)	2 (0.29)	
For the quantity	4 (1.24)	3 (0.81)	7 (1.01)	
Total	322 (100)	372 (100)	694 (100)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학교 식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달리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가 59.37%, '가격이 저렴해서'가 19.60%, '시간이 절약되므로'가 16.43%, '편하고 자유로워서'가 3.31%, '양이 많아서'가 1.01%, '맛이 좋아서'가 0.29%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정¹²⁾ 등의 조사에서 '달리 먹을만한 장소가 없어서', '가격이 저렴하므로'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나, 한¹⁰⁾의 결과인 '가격이 저렴해서', '시간이 절약되므로', '달리 먹을만한 장소가 없어서'의 순서와는 차이가 난다. 주간, 야간 학생 모두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달리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였고, 그 다음 요인으로 주간은 저렴한 가격과 시간절약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야간에서는 시간 절약이 가격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야간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간 학생보다 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 41.43%,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26.61%, '비위생적'이므로' 13.04%, '가격이 비싸므로' 11.96%,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5.89%,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7%로 나타났다(Table 4). 이는 한¹⁰⁾의 결과인 '맛이 없어서' 28%,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21%,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20%, '시간이 오래 걸려서' 13%, '비위생적이므로' 8%, '가격이 비싸서' 7%의 순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정¹²⁾의 조사에서 '너무 복잡해서'(28.3%),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28%), '점심시간이 부족해서'(21.3%)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질의 재료 선택과 조리법의 향상과

Table 4. Reasons for not using the college cafeteria N(%)

	Day*	Night**	Total
Bad taste	137 (52.09)	95 (31.99)	232 (41.43)
Not enough variety	59 (22.43)	90 (30.30)	149 (26.61)
Crowdy and noisy	20 (7.60)	13 (4.38)	33 (5.89)
Consumes too much time	1 (0.38)	5 (1.68)	6 (1.07)
Sanitary reasons	25 (9.51)	48 (16.16)	73 (13.04)
Not economical	21 (7.98)	46 (15.49)	67 (11.96)
Total	263 (100)	297 (100)	560 (100)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함께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점심(주간 학생의 경우) 또는 저녁(야간 학생의 경우) 식사 해결방법으로는 '학교밖에서'가 51.87%, '집에서 먹는다'가 21.76%, '도시락을 지참한다'가 2.02%, 기타 24.35%로 나타났다(Table 5). 기타의 내용으로는 군것질로 대신하거나 결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에서 사먹는 경우가 주간 학생(68.63%)은 야간 학생(37.37%)보다 현격히 높았는데 이 결과로 보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려는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생들이 패스트 푸드 선택이 가격보다는 기호에 따라 선택한다는 보고^{13,14)}와도

Table 5. Ways to eat the lunch(day time class) or dinner(night time class) in the case of not using the college cafeteria N(%)

	Day*	Night**	Total	Remarks
Lunch box	8 (2.48)	6 (1.61)	14 (2.02)	$\chi^2=75.83$ DF=3 p<0.001
Outside of the college	221 (68.63)	139 (37.37)	360 (51.87)	
At home	35 (10.87)	116 (31.18)	151 (21.76)	
Others	58 (18.01)	111 (29.84)	169 (24.35)	
Total	322 (100)	372 (100)	694 (100)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일치한다. 또한 야간 학생의 경우 저녁을 집에 가서 먹는 경우가 31.18%로 비교적 많았는데 이 경우 상당히 늦은 시각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됨으로 매우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섭취의 불균형, 비만, 위장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함으로써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락을 지참하는 경우는 2.02%로 류¹⁵⁾의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7.2%, 신 등¹⁶⁾의 전북 익산지역 대학생들의 3.9%와 비교할 때 훨씬 적은 편이며, 한¹⁰⁾의 연구에서는 8%, 유⁹⁾의 연구에서는 1.8%, 현¹⁷⁾의 연구에서는 0.7%로 보고하여 지역과 조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6은 하루 평균 매식 횟수를 조사한 것으로 1회가 19.65%, 2회가 28.96%, 3회가 6.92%로 나타나 대학생의 88.61%가 1일 1~2회 매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¹⁰⁾의 연구와 일치했다.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남학생의 37.1%와 여학생의 35.6%가 아침식사를 거른다는 보고⁸⁾를 염두에 두면 학교 내에서의 균형잡힌 영양 공급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 3회를 모두 매식하는 경우도 6.92%나 되어 조사 대상자 중 하숙, 자취생뿐 아니라 자택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일부는 매 끼니를 집 밖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일 학교 식당 이용율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학교 식당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생활 중 평균적인 식사의 형태는 밥식>라면, 국수류>과자, 음료수>빵식>결식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간 학생들이 점심식사 5회 중 밥식을 선택하는 횟수는 2.22회로 나타났고 야간 학생들은 1.65회로 작게 (p<0.05) 나타났다(Table 7). 빵식은 평균 0.23회로 상당히 선택되는 횟수가 작았지만 라면이나 국수류의

Table 6. Frequency of eating out N(%)

	Day*	Night**	Total	Remarks
None	7 (2.17)	24 (6.45)	31 (4.47)	$\chi^2=11.21$ DF=3 p<0.05
1 time /day	186 (57.76)	228 (61.29)	414 (59.65)	
2 times /day	107 (33.23)	94 (25.27)	201 (28.96)	
3 times /day	22 (6.83)	26 (6.99)	48 (6.92)	
Total	322 (100)	372 (100)	694 (100)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Table 7. Average type of a meal (times)

	Day*	Night**	T value
Boiled-rice type	2.22±1.50	1.65±1.50	4.91 [†]
Bread type	0.23±0.68	0.23±0.58	0.13
Lamyun, noodles	2.12±1.49	1.76±1.47	3.13 [†]
Snacks, Soda	0.42±0.97	0.65±1.15	-2.72 [†]
Skip a meal	0.24±0.61	0.64±1.09	-5.97 [†]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 p<0.05

비율은 밥식에 상응하는 정도로 나타났는데, 면류가 주식인 경우 대부분 부식으로 김치류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영양섭취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과자, 음료수로 대신하거나 결식하는 비율은 야간 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9개 4년제 대학생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정 등¹²⁾의 연구에서 점심식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58.3%에 불과하고 간단히 스낵류로 대체하는 경우도 3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스낵류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들의 식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¹¹⁾의 연구에 의하면 야간 여대생의 경우 주중 1~2회 결식하는 학생이 45.4%이고 거의 매일 결식하는 학생도 16.9%나 되었다. 결식의 이유로는 직업군에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55%, '입맛이 없어서' 12.8%였으나, 비직업군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32.8%, '시간이 없어서' 24.6%, '체중조절을 위해서' 24.6%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야간 학생의 강의 시작시간이 대개 5시 30분에서 6시 30분이어서 직장을 가진 경우 저녁을 거르기 쉽고 강의 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이 너무 짧아 식사할 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야간 학생들은 저녁을 밥식으로 제대로 하기 보다는 과자, 음료수로 간단히 요기하거나 결식하고, 또는 집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할 때 학교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며 학교 식당의 운영도 더 질적 보강이 필요하다.

3. 학교식당의 음식과 내부 환경 및 청결에 대한 만족도

Table 8은 학교식당의 음식의 가격, 외관, 맛, 양, 종류, 영양, 기호, 반찬 가지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음식의 맛에서 주간 학생과 야간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간 학생들이 야간 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낮아 보다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는 경향이 컸다(p<0.05). 전체적인 만족도를 비교하면 음식의 양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낮은 만족

Table 8.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on the college cafeteria food

	Day*	Night**	T value
Price	2.36±0.90	2.33±1.04	0.42
Appearance	2.43±0.73	2.42±0.74	0.11
Taste	2.34±0.79	2.47±0.79	-2.10 [†]
Quantity	3.03±0.90	2.93±0.93	1.38
Variety of the menu	2.16±0.79	2.22±0.80	-0.93
Nutrition	2.25±0.71	2.23±0.75	0.32
Preference	2.17±0.78	2.22±0.81	-0.87
No. of the side dishes	1.89±0.78	1.92±0.80	-0.61

1 =very poor, 2=poor, 3=moderate, 4=good, 5=very good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 p<0.05

도를 보였으며 특히 반찬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¹⁰⁾의 연구와 비교할 때 양적 만족은 더 높았으나 나머지 요인은 모두 낮아 서울 지역보다 경기북부 지역 대학 식당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교 식당의 음식이 싼 것에 비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격에 있어서도 만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음식의 질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9는 학교식당의 내부 환경 및 청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각 요인에 대해 주간 학생과 야간 학생간에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낮은 값은 나타내 학생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학교식당의 개선점

Table 10은 학교식당의 개선점을 조사한 것으로 '맛과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가 53.60%로 가장 큰 해결과제였고, '메뉴가 다양해야 한다'가 17.29%,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13.98%, '주위 환경 및 식기가 청결해야

Table 9.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on the service area and sanitation of the college cafeteria

	Day*	Night**	T value
Service area	2.57±0.79	2.47±0.83	1.56
The sanitation of the dining tables and chairs	2.31±0.88	2.37±0.81	-0.99
The sanitation of the dishes	2.20±0.85	2.34±0.82	-2.25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1=very poor, 2=poor, 3=moderate, 4=good, 5=very good

Table 10. The necessary improvements for the college cafeteria N(%)

	Day*	Night**	Total	Remarks
Improve the quality and the taste of the food	203 (63.04)	169 (45.43)	372 (53.60)	$\chi^2=22.25$ DF=5 p<0.001
Increase variety of the menu	42 (13.04)	78 (20.97)	120 (17.29)	
Lower the price	35 (10.87)	62 (16.67)	97 (13.98)	
Reduce the waiting time	4 (1.24)	6 (1.61)	10 (1.44)	
Sanitation of the service area and the dishes	36 (11.18)	53 (14.25)	89 (12.82)	
The looks of the food	2 (0.62)	4 (1.08)	6 (0.86)	
Total	322 (100)	372 (100)	694 (100)	

* Day time class, ** Night time class

한다'가 12.82%, '배식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가 1.44%, '음식의 외관이 향상되어야 한다'가 0.86%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결과와 유사하여 바로 그것이 개선점으로 꼽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맛과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에 대해 주간 학생이(63.04%) 야간 학생보다(45.43%) 높게 응답했고, 반면 '메뉴가 다양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야간 학생이(20.97%) 주간학생보다(13.04%) 요구가 많았다(p<0.001).

그러므로 다양한 양질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영양사를 통한 체계적인 식당의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고, 조리원의 조리 기술 향상 및 위생교육을 통하여 같은 재료라도 더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해야겠다.

결 론

1. 학교식당의 이용빈도는 거의 매일과 1주일에 1~2회가 73.38%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식당을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주간 학생이(64.29%)이 야간 학생보다(44.35%) 유의하게 높았다.
2.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이유는 '달리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시간이 절약되므로', '편하고 자유로워서', '양이 많아서', '맛이 좋아서'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비위생적 이므로', '가격이 비싸므로',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학교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학교 밖에서 사먹는다'가 51.87%, '집에 가서 먹는다'가 21.76%, '도시락을 지참한다'가 2.02%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88.61%) 매일 1~2회 이상의 매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 중 평균적인 식사의 형태로는 주간 학생의 경우는 야간 학생보다 밥식과 라면, 국수류를 선호했고, 야간 학생들은 과자, 음료수로 매우거나 결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5. 학교식당의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는 야간 학생들이 주간 학생보다 더 만족했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하나 가격, 외관, 맛, 종류, 영양, 기호, 반찬수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고 특히 반찬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당의 내부환경 및 청결에 대한 만족도는 주간, 야간 학생 모두 낮게 나타났다.
6. 학교식당의 개선점으로는 '맛과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메뉴가 다양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주위 환경 및 식기가 청결해야 한다', '배식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음식의 외관이 향상되어야 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식당은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맛과 질이 향상되고 영양이 고려된 다양한 메뉴의 식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측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영양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경기 북부 지역의 3개 전문대학에서 주, 야간별 학생들의 학교식당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학교식당의 이용율에서 거의 매일 이용하는 주간 학생은 64.29%였고, 야간 학생은 44.35%로 주간 학생의 이용이 더 많았다.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달리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가 주, 야간 각각 49.38, 68.0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시간이 절약되므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간인 경우 52.09%, 야간의 경우 31.99%가 '맛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간인 경우 68.63%, 야간의 경우 37.37%가 학교 밖에서 매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식사의 형태는 밥식>라면, 국수류>과자류>

빵류의 순이었다. 학교식당의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음식의 양을 제외하고는 맛, 기호, 반찬수 등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식당의 개선점으로는 '음식의 맛과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메뉴가 다양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위생적이어야 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우미경, 현태선, 이심열, 모수미 : 일부 도시 직업인 및 학생의 아침식사를 중심으로 한 식생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 103 (1986).
2. 김선효 : 거주형태에 따른 공주지역 여대생의 식생활 비교, *한국영양학회지*, 28(7), 653-674 (1995).
3. 이경애, 박영숙 : 충남도내 대학 급식시설의 급식관리 실태 조사, *순천향대학교 논문집*, 16(3), 783-789 (1993).
4. 박영숙, 이경애 : 대학 구내 식당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순천향대학교 논문집*, 16(3), 799-806 (1993).
5. 윤계순, 황혜선 : 야간 대학생들의 식생활 실태 및 피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1), 43-50 (1994).
6. Fingk, A. and Kosecoff, J. : How to conduct Surveys -A Step by step Guide, Sage Publ., Newbury Park, p36, (1985).
7. Minium, E. W. : Statistical reasoning in psychology and education, Wiley and Sons, Inc., 332-334, 442-443 (1978).
8. 이기완, 이영미 :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대학생의 식생활 관련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2), 125-132 (1995).
9. 이희분, 유영상 : 서울지역 대학생의 점심식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3), 147-154 (1995).
10. 한명주 : 서울지역 대학식당의 이용실태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113-119 (1992).
11. 이보숙, 이영순 : 야간 여대생들의 식생활 실태 및 피로도 등의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I), *한양여자전문대학 식품영양연구논집*, 4, 23-22 (1990).
12. 정영진, 이정원, 김미리 : 대학식당의 식단의 특성과 운영 실태조사(I), *한국영양학회지*, 5(2), 107-118 (1982).
13. 한명주 :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1992).
14. 김혜경 : 울산지역 대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1(1), 131-141 (1996).
15. 류은순 :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8(1), 43-54 (1993).
16. 신미경, 서은숙 : 대학생의 식습관과 식품 선호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18 (1995).
17. 현태선, 박영숙, 이연화 : 기저지별로 비교한 대학생의 식생활 형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5), 391-404 (1995).

(1997년 5월 27일 접수)